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부지에 조성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23일 현재 4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전당 내부를 채울 콘텐츠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예산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亞문화전당 채울 콘텐츠 개발 '깜깜'

개관 2년 앞둔 내년 예산 요구액 28%만 반영...작품 섭외·인력 확보 차질

오는 2015년 7월 개관을 앞두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내년도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해 25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70억원의 예산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7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진단은 올해 7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일부 전시관 자료 확보와 각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개관 준비를 위한 시뮬레이션 비용으로 사용했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을 2년 남짓 앞두고 본격적인 개관 전시와 공연 준비에 필요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총 요구액의 28%만 반영된 것이다.

추진단은 내년부터 정부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예산 지원을 받아 해의 전시관 작품 섭외 및 의뢰, 문화예술전시 감독 등 전문가 집단 구성, 각종 연구 사업,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개관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올해 수준에 불과해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문화전당은 민주평화

교류원·문화창조원·아시아문화(정보)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지식문화원 등 5개 원으로 구성돼 있는 신개념 미래형 복합문화시설인데도, 현재까지 이를 연계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물론 각 원별 특성에 맞는 독자 콘텐츠 등도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후 '개전 휴업'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내년부터 관련 예산의 증액이 절

실하다는 게 관련 기관·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인데,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라면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미확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많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다만, 연차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사범·사대 교육대학교

제38회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2012. 10. 27(토) 09:00
○장소: 모교 운동장(동향대)
○전화: 062-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대선판도 '호남의 힘'

文·安 전략적 지지...민주당 초비상 후보들 잇단 러브콜 민심잡기 부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의 원동력이 됐던 호남 민심의 '힘'이 이번 대선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당장, 호남 민심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놓고 그 어느 쪽에도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는 팽팽한 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의 흐름은 후보단일화의 승패는 물론 대선 구도와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어떠한 미래 비전과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후보에 비해 문 후보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 민심에는 탁월한 정

치적 감각이 배어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호남을 정치적 텃밭으로 여기고 선거 때만 호남을 찾던 민주당에 지역 민심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틈만 나면 '탈 호남'을 외치며 기득권을 형성한 민주당 내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이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역할을 지역 민심이 대선을 지렛대 삼아 이뤄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 후보 선대위에 포진했던 친노 핵심 참모들의 일괄 사퇴도 호남 민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당 안팎의 압박에도 버텼던 선대위 내 친노 핵심 참모들도 호남 민심이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

자 결국 '2선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의 흐름에 민주당은 비상 상황에 돌입한 상황이다.

초대 책임총리에 호남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초대형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 각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무소속 안 후보도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현재의 지지율 유지가 어려운 것은 물론 후보단일화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안 후보가 호남에 대한 별다른 비전 제시가 없다는 점에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호남 민심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까지 광주에 상주키로 하는 것은 물론 대담경 인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5·18 유가족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등 진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임종욱기자 tuim@kwangju.co.kr

교신 리허설...오늘 발사대에 세운다

나로호 3차 발사 D-2...막바지 준비 분주

나로호 3차 발사를 사흘 앞둔 23일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나로 과학위성과의 교신을 위한 최종 공개 리허설이 실시되는 등 마무리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과의 교신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전 최종 점검을 한 것이다. <관련기사 5면>

이날 리허설은 나로호가 예정대로 26일 오후 3시30분에 발사될 경우 연구센터 지상국과의 첫 교신이 가능해지는 시점인 27일 오전 2시57분부터 14분 동안 정상적으로 교신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 이뤄졌다. 10여 명의 연구원들은 교신에 이용

되는 '13m급, 3.7m급 안테나 제어' 모니터를 비롯해 위성상태 정보, 탑재 컴퓨터 제어, 자세 제어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컴퓨터 모니터를 지켜보며 교신 상황을 점검했다.

발사 당일 위성과의 교신에는 위성 개발자, 관리 인력 등 모두 25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발사시간에 맞춰 인공위성연구센터 내 대강당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고풍군 나로우주센터 현지에서 나로호가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또 최근 진행된 발사운용에 대한 예행연습(Dry-run)과 나로호 총조립체 점검도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발사대 이송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이 같은 발사 준비 과정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기준일 이틀 전인 24일에 발사 운용에 착수한다. 이날 나로호는 발사체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되어 기립되며, 25일 발사리허설을 마치고 다음날인 26일에 발사된다.

한편 나로호 발사 3시간 전부터 발사장 주변 해역에서 선박통항과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호의 비정상 비행 가능성에 따른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간으로,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의 폭 24km, 길이 75km에 이르는 해역이다.

발사 당일 해상 통제구역에는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노는 스타일이 다르다 U스퀘어, U스타일

유·스퀘어에선 지루한 일상도 축제가 된다
모든 문화를 한번에 즐기는 광주 최초 멀티플렉스 유·스퀘어

- 여행: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공연: 아리무대 U-광장
- 쇼핑: 신세계백화점 E-MART
- 클래식: 금호아트홀
- 연극: 동산아트홀
- 전시: 금호갤러리 U-STORY
- 영화: CGV IMAX, 4D플렉스
- 도서: 영풍문고
- 만남: 패밀리레스토랑왕송가파

유·스퀘어